

## 농축산소식

### 우유 판매 5~10% 줄었다

전반적인 우유 판매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 우유 등 유업체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우유 판매는 전년 동기와 비교했을 때 5~10% 가량 시유 판매율이 줄어든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전월과 비교해도 5~10% 하락한 수치다. 업계 전문가들은 우유 제품값을 올린 지난해 10월과 비교해도 판매율이 하락한 편으로 12월의 판매하락은 우유값 인상에 따른 가격 부담이 원인이기 보다는 강추위와 불경기 등 복합적인 원인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서울우유의 한 관계자는 “유통점의 상황을 들여보면 대형마트 등의 평일 매출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등 경기불황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는 듯하다”며 “여기에 12월에 들면서 강추위가 지속되는 등 우유 판매가 줄어들 만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 같다”고 말했다.

타 유업체 관계자도 “보통 연말에는 연말특수가 있기 마련인데 최근 경기가 확실히 좋지 않다”며 “전체적인 원유량 감소로 덤 행사 등의 적극적인 프로모션이 적은 편이며, 우유 제품값을 올린 것도 원인으로 작용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유업체들은 이같은 판매율 하락을 회복키 위해 이달부터 각종 프로모션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이달부터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 우유 판매율 회복은 다소 불투명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전문가는 “유업체들은 우유 제품값을 최소로 올렸다고 생각하지만 서민입장에서는 100~200원도 저항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원유생산량도 예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어 잉여원유를 활용한 적극적인 프로모션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며 “1~2월은 본격적인 추위와 방학기간이 겹치는 기간이기 때문에 우유 판매율 회복에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상했다.

### “FMD 백신 부작용, 농가에 책임 떠넘기니”

정부의 FMD백신 부작용과 관련 조사결과 발표에 대해 축산업계가 곱지 않은 시선을 보였다. 축산관련단체협의회(회장 이승호, 낙농육우협회장은) 지난해 12월 27일 농

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발표한 FMD백신 관련 조사결과에 대한 논평을 발표했다.

축단협은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축산 현장에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FMD 백신 부작용에 대해 일축했다”며 “조사내용을 보면 부작용이 심하다고 주장한 농가들을 대상으로 축종별로 30농가를 선정하여 심층 조사한 결과, 저온 상태의 주사액 사용, FMD 발생초기 무분별한 백신 접종 등을 이유로 들어 이는 오히려 농가 부주의에 의해 부작용이 발생되었다는 애매한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지적했다.

더욱이 “백신접종 전후 증체량, 유량저하, 유질감소는 극히 미미하며 유사산, 폐사는 오히려 줄었다는 것은 현장 농가나 검역검사본부 둘 중 하나는 거짓말 하고 있다는 얘기 밖에 안 된다”고 밝혔다. 축단협은 “우리나라가 FMD 백신의 시험장이 됐다”며 “FMD 발생도 검역당국이 모든 책임을 농가에게 떠넘겨 방기했다”며 백신 부작용도 농가 탓으로 돌리는 것은 소, 돼지가 웃을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축단협은 “FMD 방역에 있어서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가 가져야 할 소명임을 직시하고 백신 부작용에 대해 정확히 조사하여 대책을 강구하는 것이 올바른 검역당국의 자세”라고 강조했다.

### 육우·송아지 가격 폭락, 대량소비처 확보하고 최소 생산비 보전

생산비 이하로 폭락하고 있는 육우와 육우 송아지 가격 대책으로 대량소비처 확보와 송아지 수매 및 육우 최소 생산비 보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12월 26일 농수축산신문사가 개최한 ‘육우 송아지 가격 폭락, 이대로 안된다’ 좌담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 같은 대책마련을 촉구하며 육우산업에 대한 정부의 관심을 요구했다.

이용우 한국낙농육우협회 이사는 “한우 마릿수 급증과 수입쇠고기 증가, 소비 부진 등으로 육우가격은 전년 대비 30%, 육우 송아지 가격은 93% 폭락했다”며 “그나마 육우 송아지 거래는 아예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육우농가는 출하 마리당 150만원의 적자를 보고 있어 낙농

목장의 수송까지 적체가 심화, 목장경영까지 악화되고 있다"고 울분을 토했다. 이에 생산자를 위시한 농협, 학계 관련자들은 육우산업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함께 대량소비처 확보, 송아지 수매, 육우사육농가 최소 생산비 보전 등을 요구했다.

최현주 한국낙농육우협회 육우분과위원장은 "육우가격 안정을 위해 육우고기 근급식 물량을 더욱 확대하고 육우전문판매장 설치 지원 등 유통판로를 확대하는 등 대량소비처를 확보해야 한다"며 "육우사육농가들을 위해서는 최소 생산비를 보전해 출하가격을 지지하거나 수매 등의 적극적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협측에서도 육우 산업 육성을 위해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는 한편 보다 현실적인 대책마련을 주문했다. 권영웅 농협 축산지원부장은 "목우촌과 연계해 육우 육가공품 개발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육우 전문브랜드의 판매장을 현재 3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낙농축협 조합자들과 논의를 통해 마릿수를 줄이기 위한 자율도태 등에 대해서도 의논하고 있다"면서 "정부가 나서 육성우 전문목장이나 송아지 가격안정제 같은 피부에 와 닿는 정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

### 스마트폰, 구제역 의심가축 진단 해결사

최근 스마트폰 이용자가 크게 늘고, 화질이 높아져 구제역 진단 시간이 최고 10시간 이상 빨라지고 있다. 한국인터넷진흥원에 따르면 2011년 12월 현재 스마트폰 이용자는 국민 10명 중 4명 이상이고, 젊은 층은 이보다 훨씬 높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관계자는 "최근에는 구제역 의심축 신고가 들어 오면 현장에서 가장 가까운 곳의 방역요원이 출동해 스마트폰으로 가축의 증상을 촬영, 메일로 전송(사진)한다"면서 "그러면 전국 어디든 1분 만에 사진이 경기 안양의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상황실에 도착해 잠정진단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최종 결과는 현장에서 채취해 온 시료를 정밀 분석해 판단하지만, 스마트폰 사진만으로도 사전 대비가 가능해 아주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스마트폰 이용 전에는 검역검사본부가 소재한 안양에서 출동해 시료를 채취하고 이를 다시 가져와 분석, 결과가 나올 때까지 마냥 기다려야 했다. 실제 경북지역의 경우 현장출동 및 시료 채취·운반 등에 1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 올 들어 접수된 의심축 신고 21건 가운데 86%인 18건이 경북에서 발생했다.



### 농식품부, 볏짚 유통실태 일제점검 정례화

농림수산식품부는 최근 조사료 수요량의 증가로 볏짚 가격이 상승하면서 매점매석 등 부정유통행위가 늘고 있어 정기적으로 볏짚 유통실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 농식품부는 지난 해 12월 9일 전국 도별 조사료 담당자와 관련기관을 대상으로 '2011년 볏짚 수급현황 회의'를 개최해 볏짚가격 안정방안을 논의했다.

최근 볏짚가격은 벼 재배면적의 감소와 수확기 잦은 강우로 볏짚 수거량이 감소한 반면 한우육 사육마릿수의 증가로 조사료 수요량이 증가하면서 크게 올랐다. 실제 올해 벼 재배면적은 85만4000ha로 지난해보다 4.3% 줄었으며, 볏짚 생산량도 지난해 224만7000톤에서 올해 215만2000톤으로 감소했다. 이로 인해 지난달 말 기준 볏짚 평균가격은 450kg 기준 5만6000원으로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24%나 상승했다.

이에 농식품부는 볏짚의 공급감소를 틈타 볏짚 가격상승을 유도하려는 매점매석 등의 부정유통 행위가 예상되고 있어 시도는 주 1회, 시군은 주 2회 볏짚 유통실태 일제점검을 정기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부정유통 행위를 한 경영체와 농가, 사료공장에는 내년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사업 및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배정시 불이익을 줄 계획이다. 더불어 지역별 볏짚 생산·공급 가능한 물량을 농협 주관 아래 조사해 직거래를 유도하고 2012년 수입조사료 할당관세 물량을 상반기에 조기배정해 볏짚 가격을 조기에 안정시켜 나갈 방침이다. ☺